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자연은 스승이고 벗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이 변화해가듯 사람도 변화해가는 것이다. 흐리고 맑고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날씨처럼 사람도 빛과 어둠 사이에서 흐리고 맑고 바람 불고 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철이 드는 것이다.

세월을 겪다보면 맑은 하늘만 만날 수 없듯 행복과 자유만을 누릴 수 없다. 비바람 몰아치듯 역경과 고난의 터널에 갇힐 수 있고 엄동설한의 폭설이 이어지듯 타는 목마름의 허기진 고독과의 싸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훈풍에 돛단배처럼 평화로울 수도 있고 삭풍에 벌거숭이 되어 광야를 헤맬 수도 있을 터이다. 다만, 세상의 절반이 밤이요, 절반이 낮인 것처럼 절반은 행복한 일이 절반은 불행한 일이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며 반복적으로 생(生)하고 멸(滅)할 뿐이다. 하여, 하루를 점검해 봐도 아침과 낮, 그리고 저녁의 온도가 차이 나듯 말과 행동에 있어 고른 화음(和音)을 지니지 못하고 더러는 흔들리고 때로는 헐떡이는 그림자를 남겼을 터이다.

육체의 온도는 한결같이 적정수준을 지켜오고 있으나 정신의 바람과 욕구, 끌어당김과 빨려듬의 팔만사천가지 생각들은 하늘을 날고 땅바닥을 기며 윤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또 하나의 선지식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자 착한 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불평불만이 없다. 다투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친소(親疎)와 차별이 없고 절대평등의 평화를 보여준다. 이름 모를 들꽃에도 전설이 담겨 있고 햇볕과 그늘에도 교훈이 살아 움직인다. 자연은 그대로 학교이고 선생님이고 교과서이다. 자연은 말이 없으나 무언(無言)의 설법자이다. 화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세계를 끊임없이 펼쳐 보여준다. 새소리, 물소리, 풀벌레에서 바람소리에 이르기까지 귀만 호강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잔잔하게 덮어준다.

꽃과 새싹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녹음 짙은 푸름에서 낙엽 지는 쓸쓸함까지 자연은 그대로가 신비로움의 천지창조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과목이 다른 선생님이요 하늘과 땅의 변화는 우주의 신비를 가르치는 열려 있는 학교이다.

자연을 닮은 지혜가 무위(無爲)의 삶이라고 장자(莊子)는 말하고 있지만 자연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며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교과서이다. 자연은 꾸밈이 없다. 드러내거나 감추지 않는다.

선(線)을 그으며 편 가르는 일이 없고 다툼으로 등 돌리지 않는다. 자연은 정직하다. 순수하다. 있으면 있는 대로 티내거나 뽐내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 죽거나 부끄러워 주눅들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눈·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햇살을 탓하거나 그늘을 비켜가는 다툼 놀이를 즐기지 않는다.

밤에 내리는 이슬을 생명수로 고맙게 받아들이며 곤충과 벌레, 새와 짐승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멸(生滅)을 거듭하며 순응의 미학(美學)으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누구나 생(生)노(老)병(病)사(死)의 정해진 괘도를 달리면서도 좀처럼 순응하려 하지 않는다. 삼천갑자 동방삭처럼 오래 살고 싶고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몸부림치며 불사(不死)의 약을 찾아 헤맨다.

늙어가되 곱게 늙고 병들어 신음하되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개운하게 아름답게 하질 못한다. 죽음이 목에까지 차오른 순간에 이르러 겨우 '미안했다. 고마웠다. 감사하다' 는 말을 힘겹게 남길 뿐.

삭신 멀쩡할 때 정신 또렷할 때 늙고 병들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가족, 친지, 이웃과 배우자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왜 생활의 언어로 활용하지 않는지 자연의 변화, 자연의 무상함에서 배우고 또 배울 일이다. 자연은 한 순간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법이다. 사람 또한 걸어 다니는 자연으로 순간순간 변화하며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낮과 밤이 반반이듯이 사람은 누구도 반반의 행복과 불행을 넘나들며 생각의 윤회 속에서 철이 들다가 막내리게 되어있다. 마지막 그림자를 거두기전에 삭신의 작동이 더 망가지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할 일이다. 자연을 닮아 평화롭게 넉넉하게.

자연은 드러내거나 감추지 않는다
평화롭고 넉넉한 자연을 닮아보자

無心禪 주창한 백운 禪法

〈무심선〉 〈선법〉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백운경한(白雲景閑:1298~1374)은 고려 말 태고보우(太古普愚), 나옹혜근(懶翁惠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스님이다. 세 사람이 모두 중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 고려불교의 중흥에 힘썼다. 경한도 중국에서 임제종의 18대손인 석옥청공(石屋淸珙)을 참방하고 그의 법을 전해 받았다. 그리하여 려말(麗末)에 석옥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아 임제종지(臨濟宗旨)를 이은 스님이 두 사람인 셈이다. 그러나 경한은 보우가 귀국 한 뒤인 그의 나이 54세 때 중국으로 들어가 법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수법 연대가 보우에 비해 늦다. 그래서 려말의 임제종 중흥조를 일반적으로 보우라 한다. 한 때는 보우가 조계종의 종조로 받들어진 때도 있었다. 경한은 또 지공(指空)을 찾아가 법을 묻기도 했다. 지공은 나옹에게 법을 전해준 사람이다. 경한은 중국 체류기간이 1년 남짓 되었다.

경한은 불후의 명저로 꼽히는 〈직지심경(直指心經)〉을 남겨 이 책으로 인해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원래 이 책은 경한이 스승 석옥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으면서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전해 받았는데 매우 간략한 내용이었던 것을 나중에 경한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불조의 혈맥이 되는 법문의 정수들을 가려 추가해 정리한 것으로 본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었다. 이 말을 간단히 줄여 〈직지심경〉 혹은 그냥 〈직지〉라 불렀다. 이 〈직지〉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라 하여 널리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직지심경〉이 경한의 선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문헌인데 이에 나타나는 특징은 임제 종지를 이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한이 정통 간화선보다 무심선(無心禪)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심선이란 사량분별에 물들지 않고 시비와 선악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인 무심을 도의 본체로 보는 선관(禪觀)이다. 흔히 선가에서 자주 써온 말인 "마음이 부처다(心卽是佛)"할 때의 부처인 마음이 분별이 없는 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쓰는 말이다.

황벽의 〈전심법요(傳心法要)〉에 배휴(裵休)가 부처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황벽이 대답해 주는 말이 있다.

"마음이 부처이며, 무심 그대로 도이니 다만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 긴 것과 짧은 것, 이것과 저것, 주관과 객관 등을 분별하는 마음이 하나하나가 본래 부처인 것이다. 부처란 본래 마음이며 마음은 허공과 같다."

간화선의 완성자라 일컫는 대혜종고(大慧宗 ᵽ 이렇게 설법을 한 적이 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는 사람을 멀리 하지 않으며, 무심이 바로 도(道)이니 도는 사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만 이 마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오직 이 도로써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 도로써 중생을 제도하나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이 마음으로써 법을 설하지만 설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법을 설하는 것이며, 제도할 중생이 없어야 진실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마땅히 알라. 삼세의 부처님도 이러하며, 눈앞에 있는 대중들도 이러할 뿐이다."

무심이란 구체적인 대상 속에 있으면서도 대상에 대한 망상분별이 없으므로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한다. 경한이 간화치중보다 무심을 강조한 것은 선의 본질이 방법이나 수단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육조의 선법이나 임제의 선법이 근본에서 보면 다 무심선이기 때문이다. 〈직지〉에서 지공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한 것도 지공의 선법이 무심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한은 고려 말에 실시됐던 승가고시인 공부선(工夫選)의 시관(試官)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오언십이구(五言十二句) 긴 임종게를 남기고 77세에 입적했다.

"77년을 살다가 77년 만에 가노라. 곳곳이 돌아가는 길이요 고향 아닌 곳이 없거늘 어찌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유별나게 고향에 돌아가려 하겠는가? 이 몸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며, 마음 또한 머무는 곳이 없으니 이 몸을 재로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남의 땅을 차지해 묻히게 하지 말라."(七十七年來 七十七年去 處處皆歸路 頭頭是故鄕 何須理舟揖特地欲歸鄕 我身本不有 心亦無所住 作灰散四方 勿占檀那地)

사섭법 실천하면 보살이 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⑩ 보살의 지향점

菩薩作念。若不能發大精進者。何由能壞此大苦。菩薩與一切眾生同利苦樂皆同。須勤勞得成菩提。菩薩作念。我得菩提已捨與一切眾生。還於生死之中。從初發心還至菩提。復捨與眾生然不可得。菩薩ᳺ利他故行四攝法終不疲厭。猶如大地持一切物終不疲厭。ᳺ己身者自受其樂眾生疲厭。菩薩ᳺ他作樂不生疲厭° 菩薩ᳺ他作樂。見阿鼻苦如涅槃樂。於餘苦邊有何疲厭。若ᳺ一眾生受樂自受無量地獄。常作勇猛與他作樂不生疲厭° 以何因緣ᳺ他作樂不生疲厭。菩薩觀一切眾生。不見他想都如自己。眾生ᳺ結使所著。於一切處皆欲害他。ᳺ悲所持者。於一切苦無不欲受。菩薩ᳺ他受逼迫苦。如苦者樂解脫樂。

번역 | 보살은 생각하되, '만약 크게 정진(精進)을 발하지 못하면 어찌 이 큰 괴로움을 없애리오' 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과 함께 이롭고, 괴롭고, 즐거워하며 비록 수고로워도 보리를 이룹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보리를 얻되 나를 버려 일체 중생과 함께하려고 생사 가운데 돌아간다' 고 합니다. 초발심을 좇아 보리에 이르렀다고 다시 중생을 버림은 불가합니다. 보살은 타인을 이롭게 하려 사섭법(四攝法)을 행하되 끝내 싫어하지 않나니, 마치 대지가 일체의 물건을 지니되 끝내 싫어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즐거움 받음은 싫증이 생기지만 보살은 타인을 위한 즐거움을 짓기에 아비지옥의 고통도 열반락으로 보거늘, 나머지 괴로움인들 무슨 싫증을 내겠습니까.

만약 일체 중생이 즐거움을 받고 자기는 무량지옥의 고를 받아도 늘 용맹하게 타인에게 주는 즐거움 지음에 염증을 내지 않으며, 어떤 인연으로 타인을 위한 즐거움을 짓던지 염증을 내지 않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관하되 타인이라는 생각으로 보지 않고 전부 자신처럼 여깁니다.

중생은 집착에 얽매이는바 일체에 모두 욕심으로 남을 해롭게 하며 자비심을 지니려는 이는 일체의 고통을 받지 않음이 없는데, 보살은 타인을 위해 핍박과 고통을 받고 고통도 해탈락처럼 즐겁습니다.

해설 | 보살이 중생과 함께하는 삶의 지침이자 지향할 실천적 네 가지 방안을 일러 사섭법(四攝法)이라 한다. 중생을 네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말이다.

첫째가 보시섭(布施攝)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재물이나 법을 보시하여 가까운 이를 감동시키고 불법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둘째가 애어섭(愛語攝)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여 가까운 이를 불법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

셋째가 이행섭(利行攝)이다. 행위나 생각에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감동시키고 불법에 이끌어 들인다.

넷째가 동사섭(同事攝)이다. 상대편의 근성을 따라 변신하여 친하게 지내며 같이하여 이끌어 들인다.

살다보면 지속적으로 실천하기에 대단히 힘든 수행이 사섭법이다. 구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보시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시키며 아름다운 말로 일일이 대꾸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하는 일마다 남을 우선하여 일을 진행시키기가 이익을 남겨야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상대의 근기에 따라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 웃고 울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그렇다고 미워하며 배척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속이 터지는 괴로움도 달게 받아들이는 게 보살의 삶이었으니. 결코 염증을 내지 않는 게 보살의 마음가짐이었으니 말이다.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